

# 룸텍(Rumtek) 사원의 '빛바랜' 희망

## 카르마파 룸텍사원 방문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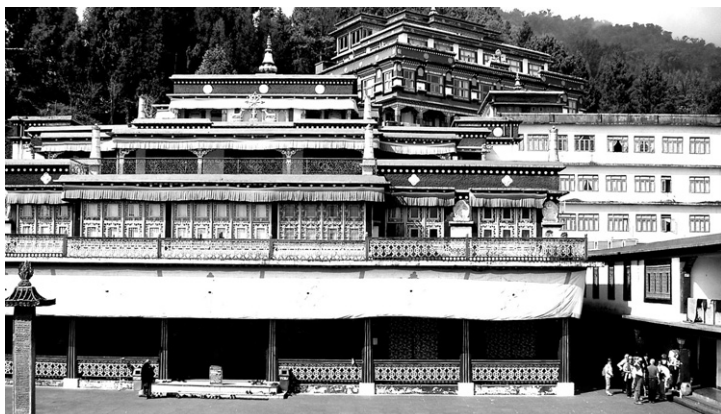
... 印 '신변과 안보' 이유로 거절

13년째 티베트 불교계의 차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인도 시킴(Shikkim) 주의 티베트사원의 사원이 21일 뉴욕타임스에 보도돼, 17대 카르마파(17th Karmapa) 스님이 또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도된 사원은 시킴 주도(州都) 강북(Gangtok)에서 남서쪽으로 24킬로미터 떨어진 룸텍(Rumtek) 사원으로,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종파인 카구파(Kagu sect)의 총본산이다. 카구파의 총본산은 원래 중국 치하 티베트 소재 툽푸(Tsurphu)사원이지만 달라이라마의 망명 이후 룸텍 사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우리의 기다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는 카르마 예쉬(Karma Yeshe) 스님은 "17대 카르마파 스님이 계시지 않은 이곳 룸텍사원은 '아버지 없는 집'이나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룸텍사원의 강백으로 1975년 중국에서 인도로 망명했다.

비단 예쉬 스님 뿐만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룸텍사원 대중들과 이곳을 성지순례지로 삼은 티베트인 대부분 17세의 나이로 티베트 불교계 4대 종파 중의



룸텍(Rumtek) 사원 전경. 시킴(Shikkim)의 수도 강북(Gangtok)에서 남서쪽으로 24Km 거리에 소재한 이 사원은 1717년 건립됐다.



사원 안에 까지 인도 군인들이 사원 보호 명분으로 들어와 있다.

하나인 카구파의 지도자로 선임돼 '부처의 삶을 실천하는 자'로 불리는 오겐 트레 도르제(Orgyen Trinley Dorje, 17대 카르마파) 스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인도 다람살라 구포(Gyuto)사원에서 '난민 지위'로 머물러 있는 17대 카르마파 스님은 인도 정부의 '신변 안전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킴 주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인도 정부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카르마파 스님에 대한 인도 정부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일각에서는 카르마파 스님이 중국 스파이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카르마파 스님이 달라이라마 차기 지도자로 부상한 이후 중국과의 정치적 마찰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카르마파 스님이 다람살라를 떠나기 위해, 먼저 정부의 여러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00년 1월초 15세의 나이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

어 인도로 망명한 카르마파 스님은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에 이은 티베트 불교 사열 3위에 해당한다. 망명 이후 달라이라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카르마파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기대에 부응해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5월 중순 미국을 첫 방문해 티베트 이민자들은 물론 미국 지식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카르마파의 법회는 이메일을 통한 판매에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하는 입장권 2만여 장이 곧바로 매진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카르마파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서 인도 정부의 딜레마가 시작됐다. 카르마파가 달라이라마를 이을 티베트 망명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중국 정부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통치하에서 티베트사회가 변형했다고 선전해왔지만 카르마파가 중국을 탈출하면서 그간의 선전이 허위였다는 것이 드러난 데다 그 역시 반 중국노선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르마 예쉬 스님은 "인도 정부와 시킴 주정부가 룸텍사원의 대중들과 이곳을 성지로 여기는 많은 티베트인들의 염원을 힘입어 정치적 부담감을 떨쳐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우명주 박사의

###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5>



# 불가촉천민들도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해야

#### 불교로의 개종결심과 대규모 개종식

암베드카르가 처음 불교를 접한 것은 그의 나이 16살 때의 일이었다. 그가 해외유학을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신해준 그의 고교 교장선생님이 '부처님의 일생'이라는 책을 그에게 선물한 것이 그 계기였다. 후자는 암베드카르가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고 이것이 불교로의 개종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종을 결심한 이후 암베드카르가 불교보다는 다른 종교를 먼저 탐색했고 또한 거의 시크교로 개종을 할 뻔 했던 것을 보면 그것은 사실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실 암베드카르의 개종선언에 대한 당시 인도 불교계의 반응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조금 미지근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인도에 거주하던 미얀마 승려 우 오타마는 개종선언에 대해 비난을 했다. 또한 스리랑카 승려 담파랄라가 조직한 불교 단체인 대각회의 서기는 "힌두교를 떠나겠다는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니다. 당신의 결심이 유감스럽습니다.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은 지각있는 상위계급 힌두들에 의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개종을 하겠다면 불교로의 입문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불교 안에서는 어떤 종교적 사회적 장애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탈리아 출신 승려 로카나타는 암베드카르가 불교로 개종하도록 적극적인 권유를 했다. 1936년 첫 만남 이후 계속된 서신왕래에서 로카나타는 "당신 서재

에 걸려있던 아름다운 부처님의 사진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제게 말했던 대로 불교는 세계에서 으뜸인 종교입니다."라고 썼다. 이렇게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암베드카르는 이때 시크교로의 개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같은 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불가촉천민들이 개종을 한다면 시크교여야 한다.'라고 쓰기도 했다.

암베드카르가 처음 공식석상에서 불교를 언급한 것은 개종선언이 있는 지 1년 후에 있었던 연설이

#### 16세때 <부처님의 일생> 읽고 불교 만나

#### 세계불교협회 참석해 불교의식 살펴

#### <붓다와 그의 가르침> 출판

#### 1956년 10월 13일 개종식

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대만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열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했다. 그는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하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라는 유언에 대해 강조하면서 불가촉천민들도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암베드카르가 불교로의 개종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1940년대 들어서이다. 그는 이 때 라쉬미 나라수가 쓴 <불교의 정수>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고 이 책을 재출판했다. 그리고 불교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인도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은 영국에 있던 불가촉천민 유



대중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암베드카르

학생의 도움을 받아 구해 읽기도 했다. 불교교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는 팔리어도 공부했다. 그리고 1946년에 세운 대학을 '잇다라타 컬리지'라고 이름 짓고 40년대 후반부에는 사석에서 불교를 포교하기 시작했다.

그가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불교 개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1950년이었다. 그해 5월, 그와 그의 지지자들은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열고 그 행사에서 그는 한 기자에게 자신이 불교를 받아들여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있었던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을 아직 불교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년에 걸쳐 불교를 공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잡지에도 불교가 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어 불교에 끌렸으나 아직 불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같은 달 그는 대각회에서 발행하는 '대각'이라는 월간지에 '붓다와 그의 종교의 미래'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그는 예수, 무하마드, 크리슈나 등과 부처님의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부처님은 다른 교주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결코 '신'이라 칭한 적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가르침이 무결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처님의 위대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낡은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종교를 가져야 하고 새로운 세상이 낡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종교뿐이다"라고 썼다.

같은 해 그는 스리랑카에서 열렸던 세계불교협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방문은 회의 참석과 더불어 생활 속의 불교예식 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의 불가촉천민들에게 불교로 개종할 것을 호소하고 기존의 불교도들에게는 불가촉천민들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그 해 9월에는 뭄바이에 있는 한 일본사찰을 방문

해 불가촉천민들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불교로 개종해야 된다고 연설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여성을 인도에서 불교를 재건하고 전파하는데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힌두교를 떠나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겠다는 선언을 한 후 처음으로 그 새로운 종교가 불교라고 밝힌 것이다.

이후 여러 차례 불교로 개종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밝히며 불교로의 개종식을 준비하고 있던 그는 쉽고 단순한 불교교리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새롭게 불교로 개종할 불가촉천민들이 공부하기에는 불교경전이 너무나 부담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1951년 집필한 착수한 그는 1956년 <붓다와 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그리고 그해 있었던 부처님오신날 행사에서 10월 13일에 개종식을 거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가촉천민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개종을 선택했던 암베드카르가 그들을 위한 새로운 불교로 불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 철학이 자유, 평등, 우애라고 밝히고 있다. 종교 또한 자유, 평등, 박애를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부합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는 열린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합리적, 과학적이어야 하고 불교만이 이러한 요구에 충족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무엇보다, 불가촉천민들을 고통받게 한 원인이 카스트 제도를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부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그를 매혹시켰을 것이다.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 손기원 박사의 지혜인 명상지도사

1급·2급 지도사 과정 모집

늘어나는 '지혜인 명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오픈!

지혜인 명상은...

-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 기반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소풍, 힐링 프로그램
-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 2급 : 3~4월 60시간 ▶ 1급 : 5~6월 80시간 교육 참관, 워크숍, 명상수련회, 자격증 수여

▶ 문의 :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85 용비어천가 1340호

## 2013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5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 스님들께만 6개월간 명리학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 그동안 제 1기에서 제 4기까지 전국에서 6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 초보자 위주로 교육하지만 그동안 다른 곳에서 명리학을 배우셨는데 통변에 자신 없는 스님께서는 강의 신청을 하셔서 교육기간동안 적응률이 뛰어난 통변비법을 배워 가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앞으로 사찰 운영하는데 신도들의 확보 문제에서 명리학의 활용도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고, 학문인 동시에 살아온 삶의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사용되는 명리학은 과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싣된 학문이라고 거부하는 풍토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 이세상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최상의 명리학 비법을 이 기회에 정착하십시오. 스님께 자신감을 드릴 것입니다.

### 장 소

- 제1장소 : 성지관원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제2장소 : 울산강의실(경상도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일시 및 기간 : 2013년 3월초부터 6개월간
- 수강료 : 6개월간 무료
- 신청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 768-8414~6 FAX 031) 768-8413

## 절교육 절수행 깨달음

700만 배 절수행 청견스님 노하우

완벽한 표정 + 자세 + 동작 + 부처님호흡대입 + 동작알아차림 + 염불알아차림

천신의 차크라 열어드리고 승통 뚫어드려 우주 태양의 氣를 받고 지구 땅의 기운 모아 자동으로 승승화강 걸려야 승고요 마승고요로 처절로 몸 나쁜기운, 맘 나쁜 생각 쪽쪽 빠져나가는 완전웰빙 심신건강 예방, 진짜 힐링, 만병통치유

승차고, 힐떡거리며 상기되고 힘빠지며 파곤하고 몸이 냉해지면 걸을 잘못 하는 것

◎ 장소 : 울산시 언양읍 남부리 81-1 KTX 울산역 3분, 서울산 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홈페이지: [www.법왕정사.net](http://www.법왕정사.net)

울산 언양법당 : 052)254-7768 대구법당 : 053)743-0063

##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끼여져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는지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